



정교회주보

제2599호

2026년 10월 18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예루살렘 성전과 주변 구역의 복원 모형. 바울로 사도가 체포된 사건의 무대인 제2 성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오순절 후 제20주일
성 루가 복음사도
(제3조 • 조과 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3조 부활 찬양송 82
- 사도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골로사이 4,5~11; 14-18(봉)597
- 복음경 : 루가 10,16~21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골로사이 4,6)

[41회] 예루살렘에서의 오해와 체포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로를 기다린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차가운 오해였다.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 아시아 출신 유다인들이 성전에서 바울로를 발견하고 군중을 선동했다. 그들은 바울로가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 그리고 성전을 거스른다고, 나아가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와 들였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이는 에페소 출신 드로피모를 도시에서 함께 본 일에 근거한 추정일 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흥분한 군중은 바울로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때리기 시작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구출한 것은 역설적으로 로마군 천인 대장이었다.(사도행전 21,27-36 참조)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 병영으로 끌려가는 사도의 모습은, 복음을 위한 충성이 때로 세상의 무서운 오해와 박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박해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도를 지키시며, 그를 통하여 복음의 증언을 이어 가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

한의학 알렉산드로스 신부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히브리 11,3)

믿음은 과거와 현재 속에서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때 불투명하여 기대와 걱정, 불안과 초조, 그리고 희망 속에서 기다리고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심정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새해에 뭔가 더 잘되고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기대감에 설레며 한 해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뭔가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미래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와 현재는 드러난 것이나 미래에는 다양한 일과 결과가 새롭게 일어나기에 관심과 도전 의식을 갖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잘 지키며 성숙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화롭게 맞이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재가 지나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미래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되고, 내일은 오늘이 진행되며 만들어집니다. 현재의 순간을 가치 있게 다뤄야 도움이 되는 과거가 되고 소중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있지만, 과거와 현재 속에서 믿음의 자취를 맛보며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



리고 절제입니다.”(갈라디아 5,22-23) 현실에서 이러한 실천의 삶을 살며 행복을 느낀다면 미래의 하늘나라를 어렵지 않게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아! 이것은 지옥 같다. 이것은 천국 같다.” 하며 삶의 느낌을 표현하곤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모시는 것은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은 불확실하고 어두운 미래를 희망의 빛으로 밝혀주고 바른길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 에너지를 솟구치게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천국의 희망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설사 꿈과 희망이 있어도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일깨워 줍니다. 볼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 주셨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계를 알려 주시어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게 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게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풍선 장수

옛날에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풍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랑, 빨강, 파랑, 분홍, 초록, 보라 등 온갖 색깔의 풍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되지 않는 날이면 헬륨 가스를 넣은 풍선 하나를 하늘 높이 날려 보내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풍선을 보고 그에게 달려와 풍선을 하나씩 사 갔고, 덕분에 장사는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런 일은 종종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풍선장수는 누군가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 보니 어린 소년 하나가 무언가 묻고 싶은 듯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검은색 풍선을 날려 보내도 하늘로 날아오를까요?”

소년의 질문에 풍선장수는 미소를 지으며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꼬마야.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은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 달려 있단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으며,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외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 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다면 우리도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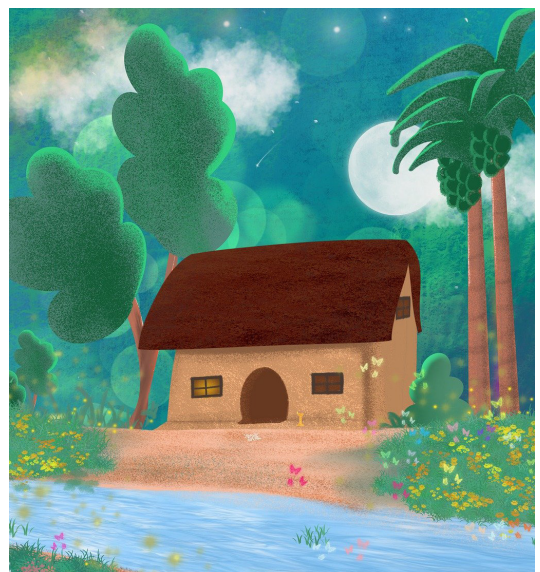
대규모의 세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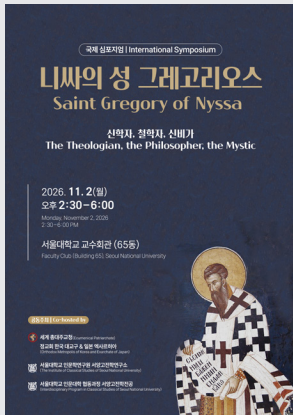
얼마 전, 미국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 주)이 한 유명한 채널에서 어린이들이 보는 프로그램 중 50%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사회적인 성과 생물학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이데올로기를 홍보하고 있다는 폭탄선언을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토론 중 홀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채널에서 나온 자료를 볼 때 어린이(십대가 아니라 그보다 어린 나이의 어린이들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른바 ‘트랜스젠더’ 의제(議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이처럼 매우 논쟁적인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납득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특정한 나라의 상황이긴 하지만 더 이상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가정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 국제 심포지엄 개최

우리 대교구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스 - 신학자, 철학자, 신비가」 (Saint Gregory of Nyssa - The Theologian, the Philosopher, the Mystic)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11월 2일(월) 오후 2:30-6:00
(심포지엄 종료 후 식사 제공)
-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65동)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늘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음식 축제는 우리 주변에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 수, 토요일 온라인 모임 안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온라인(Zoom)을 통해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영성 강론이 진행됩니다. 뿌르피리오스 성인의 책 『향기로운 삶과 말씀』을 함께 읽으며 신앙과 영성 생활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교회와 신앙, 영성 생활에 대해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교회 성 대 공의회”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께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샹티이(Chantilly)에서 개최된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세계 총대주교청이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2016년 크레타에서 개최된 ‘정교회 성 대 공의회’ 10주년을 맞아 그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대주교께서는 개막 연설을 통해 공의회의 결정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의 실제 삶과 사목 활동 속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현대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평화, 인권, 청년 문제, 창조세계 보전 등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